

Since Oct. 10, 2004

해외 한인 장로회

Church of the Lord

하나님의

Aug. 08, 2026

사랑교회

(통권 1118호)



오늘의 말씀

“온유한 사람”

[마 5:5]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담임목사 정 석 진

David Seokjin Chung / Senior Pastor

Cell 551.999.5358

pastor.ds.chung@gmail.com

5 Old Dock Rd.

Alpine, NJ 07620

Tel. 845.398.0691, 201.767.1004

Fax. 845.398.1365

www.churchofthelord.org

서론 ~ 빈 손으로 나아온(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애통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린 사람은 마침내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팔 복은 여덟 개의 독립된 교훈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점점 예수님의 마음을 닦아가는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첫 번째 복에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손에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두 번째 복에서는 애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죄를 슬퍼하게 되었고, 세상의 깨어짐 때문에 울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사람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오해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 의견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본문 강해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세번째 마음은 온유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란 무엇일까요?

[마 5:5]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여기 "온유한"은 헬라어 [πραύς(praus)] 입니다. 이 단어는 당시 헬라 사회에서 길들여진 야생마를 설명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말의 힘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주인의 손에 완전히 길들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온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Strength Under Control", 곧, 통제된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온유는 소심함도 아니고, 무기력함도 아닙니다. 화를 내지 못하는 성격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힘을 맡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힘을 가진 사람이 승리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힘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온유의 성경적 예증들을 살펴봅시다. 성경은 온유를 어떻게 보여 줍니까?

먼저 모세입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모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민 12:3]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말씀이 더욱 놀라운 이유는, 이 장면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사건 가운데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왕 앞에 섰던 사람입니다. 홍해를 가른 사람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다음은 다윗입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말합니다.

[삼상 24:6]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와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은 왕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손으로 왕좌를 빼앗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봅시다. 이번 시리즈는 예수님의 마음 시리즈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마지막 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마 11: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얼마나 놀라운 자기소개입니까? 예수님은 "나는 전능하다" "나는 심판주다" 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온유는 십자가에서 가장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병사들이 조롱했습니다. 채찍질했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이 없으셨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 26:53]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 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언제나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온유입니다. 온유는 능력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능력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다윗이 이미 노래했던 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계십니다.

[시 37:11]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37편은 악인이 형통하는 세상을 바라보며 흔들리는 의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 다윗은 “땅을 차지한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시 37:7]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시 37:9]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시 37:22]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시 37:29] 의인이 땅을 차지함이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시 37:34]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시편 37편은 악인이 형통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진 다윗의 노래입니다. 악인은 남의 것을 빼앗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악한 방법으로 땅을 차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 다윗이 발견한 것은 결국 기업은 빼앗는 사람이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 전체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손을

뺏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다윗이 시편 37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며 “억울하다; 불공평하다” 이런 불평을 한다면 아마도 예수님보다 더 불평의 이유를 가진 사람은 인류 역사 가운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뿌리치고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뜻의 완전한 성취를 바라보며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빌 2:8~11]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창세기에서는 인간이 손을 뺏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손을 끝까지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자신이 쟁취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더 크고 완전함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새로운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그냥 땅을 차지한다고 하지 않으시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업[יְרוּשָׁה(나할라)]”는 단순히 재산이 아닙니다.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Inheritance(유산)라고 번역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유산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지금 단순히 “온유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는 자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한 보상의 약속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에 대한 선언입니다.

이 말씀은 다음 장에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는 산상수훈 전체의 주제와도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를 전율케 하는 것은 팔복이란 결국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자녀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2~3장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기업을 맡기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단순한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스스로가 쟁취하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결국 그 아름다운 기업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땅을 약속하십니다.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여기서부터 기업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훗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업보다 하나님을 잃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업마저 빼앗기고 열방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시편 37편에서 다윗은 나라를 잃을 위기 속에서도 말합니다. “기다려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여기서 기업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시편을 인용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시편을 당신 자신 안에서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결정적인 해석을 해줍니다.

[롬 4:13]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기서 바울은 땅을 “세상[κόσμος(코스모스)]”으로 확장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나안”은 처음부터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22장을 보시면 마지막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이것이 기업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창세기에서 잃었던 그 기업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팔복과 산상수훈의 메시지의 중심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업 회복의 복에 참여할 수 있는 복입니다. 저는 늘 말합니다. “기독교 신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에 빠지는 일이다.” 맞습니다. 팔복은 결국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에 빠진 그의 자녀들의 삶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강한 사람이 이긴다고. 빨리 붙잡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자기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이 살아남는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보여 주셨습니다. 온유는 약함이 아닙니다. 온유는 믿음입니다. 온유는 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손보다 더 안전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빈손으로 예수님께 나옵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눈물로 예수님 곁에 머뭍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손으로 붙잡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삶을 맡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의 기도 포인트입니다.

- A. 주님, 제 마음을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으로 빚어 주소서
- B. 주님, 제 손으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주님의 때를 신뢰하게 하소서
- C. 주님, 아버지의 예비하신 기업을 소망하며 오늘도